

광주서 16년간 시 전문지 '시와 사람' 만들어온 강경호·정찬애 부부



시 전문지 '시와 사람'을 발간해온 강경호·정찬애 부부가 사무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향 광주의 시는 우리가 알릴게요”

지역 작가 30여명 발굴... 시집 등 500여권 펴내

조선족 문학·장애인 출판 지원 등 문화사업도

1996년 5월18일, 광주에서 시 전문잡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경제 관념이 없다”며 이들을 부부라고 말했다. 당시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문예지가 없었고, 대부분의 작가들이 서울지역의 문예지를 선호했기 때문에 선택 원고를 보내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공모를 해도 경제 위기마저 닥쳤고, 이들 부부는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합판의 땅도 날렸다. 16년이 흘러 이들 부부가 광주에서 만든 ‘시와 사람’은 지역의 대표 시 전문지로 성장했다.

3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시와 사람’ 사무실에서 만난 강경호(55)·정찬애(49)씨 부부는 옛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돈을 갖지 못해 인쇄소 앞을 지나가지도 못하고, 먼길을 돌아서 가야했어요. IMF때는 직원 4명을 내보내 뒤 타이핑, 디자인, 발송작업을 직접 했어요.”(정씨)

이 부부가 서울에서 출판사를 등록하고도 서울행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것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번듯한 시 전문지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이후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시와 사람’을 발간했고, 지역작가들의 시집과 문학 서적 500여 권을 출판했다.

지난 2003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정하는 우수문예지에 뽑히는 등 질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신인작가 발굴에도 앞장섰다. 이승희·조용환·채유정·이미경·김은우·유인서·서담·서승현·정혜옥·이인범·박재창·김민희·이지담·이종숙·김경옥·정경란·김별비·손수진·이숙현·정영숙·김현옥씨 등 30여명의 시인이 ‘시와 사람’을 통해 문단에 발을 내딛었다.

지속적인 지역 작가 조명 작업도 펼쳐 김지하·이상부·최하림·조태일·문병란·허영만·황지우·곽재구 등의 작품 세계를 소개했다.

“초기에는 작가들이 ‘얼마 가지 않아 망할 잡지에 작품을 낼 수 없다’며 청탁을 거절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인쇄소에 돈을 못 갖자도 원고료는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자 작가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강씨)

형편이 어려운 작가들에게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시집과 평론집 등을 내줬고, 신춘문학강연, 시낭송회,



원로시인 육필원고전, 시화전, 초청강연회 등 다양한 문화 활동도 펼쳤다.

지난 1999년부터 열고 있는 ‘시와 사람’ 여류 시인학교는 ‘시와 사람’의 히트 상품 중 하나다. 독자와 학생, 작가들이 어우러져 섬김강 등에서 밤새 문학을 논하고 수준 높은 강의를 곁들인 게 성공의 열쇠였다.

또 중국 조선족 문화와 장애인 출판 지원에 대한 관심도 ‘시와 사람’의 내실을 탄탄하게 해주는 선물이었다.

“중국조선족아동문학대계”(전 6권)는 조선족 문인들이 창작한 동화를 무료로 펴낸 대표적인 작품이다. 조선족 아이들이 우리말로 된 동화를 읽으며 자랄 수 있도록 중국을 오가며 15권의 책을 무료로 내줬고, 현지에서 책과 복사기 등을 기증하기도 했다.

“우리 글을 읽으면 민족의식도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 현지의 출판 환경이 열악해 조선 동포들이 중국어 책만 보고 있어서 조선족 문인들의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정씨)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문인들의 작품집도 공짜로 만들어줬다. ‘실로암문화회’의 문집 등 장애인 문인들의 작품이 11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시와 사람’은 창간 초기부터, 생명과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앞두고, 이들 부부는 ‘시와 사람’과 연계된 다양한 환경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잡지를 통해 생명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면,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가 됐어요. 환경 단체와 잡지사가 연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운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강씨)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절망 속 더 큰 행복찾기’ 이 부부가 사는 법

광주MBC ‘행복’ 공연 26일까지 기분좋은 극장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광주MBC(대표이사 사장 서경주)가 서울 대학로의 화제작을 무대에 올리는 ‘연극이 좋다’ 시리즈를 지역 관객들에게 다양한 관람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이번 ‘연극이 좋다’는 달콤한 사랑 이야기다. 대학로 화제의 연극 ‘행복’이 오는 2월 26일까지 광주시 서구 ‘기분좋은극장’에서 공연된다.

‘행복’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들 부부는 존재만으로도 행복과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어느 날 연달아 슬픔을 겪는다. 남편은 아내가 코넬리아 디란지 증후군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고, 아내는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걸 눈치챈다.

둘은 서로의 병은 알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모르는 상황이 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지금 보다 더 행복해지기로 결심한다.

상상하지 못했던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더 큰 행복을 꾸려나가는 부부간의 사랑이야기는 슬프지만 아름답다.

연극 ‘극적인 하룻밤’ ‘트루웨스트’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김태향, 드라마 ‘구미호-여우누이뎐’ ‘왕과 나’를 비롯해 다양한 무대에서 연기력을 다져온 한소정 등이 출연한다.

또 연극 ‘보고싶습니다’로 호평을 받은 이선희 작가와 정세혁 감독이



호흡을 맞췄다. 매주 화~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6시에 공연되고 매주 월요일은 쉼다. 입장권은 전석 3만원. 문의전화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건 마음입니다

안오일 동화 ‘천하무적 왕눈이’ 출간



목포 출신 아동문학가 안오일씨가 동생인 초등학교 여학생의 자아 찾기를 담은 동화 ‘천하무적 왕눈이’를 냈다.

초등학교 3학년 수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아이가 되려는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못난이다. 실눈에 돼지고, 튀어나온 앞니, 주근깨까지 수니를 괴롭힌다.

더구나 성이 왕씨인데다 작은 눈을 놀리느라 친구들은 수니를 왕눈이라고 부른다. 그런 왕수니에게 첫사랑이 찾아왔고, 마음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아가게 된다.

남자친구의 맘에 들기 위해 얼마 화장품으로 화장도 하고, 정감 가는 치과에 가는 어린 소녀의 일상이 정겹게 펼쳐진다.

특히 처음 만난 친구에게 아무렇지 않게 사는 아파트의 평수를 묻고, 옷차림과 생김새가 평가의 잣대가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의 일그러진 일상이 그려진다. 광주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으며, 2009년 제8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신인상’을 수상했다. 시집 ‘하얀 반란’과 청소년 시집 ‘그래도 괜찮아’, 단편동화집 ‘울창이’ 등을 펴냈다. <복면토 9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문학상에 전민식씨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기자단 모집

1억원 고료의 세계문학상 제8회 수상작으로 전민식(47) 씨의 장편소설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잘 나가는 컨설턴트였다가 한순간에 추락한 주인공이 고급 에안경을 산책시키는 일을 하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내용으로, 심사위원들은 “상처 입은 존재들이 패배 속에서도 만들어내는 치유의 풍경을 훈훈하게 그린, 인간 냄새가 나는 소설”이라고 평가했다.

제3회 세계청소년문학상 수상자인 최민경 씨의 남편이기도 한 전씨는 추계예대를 졸업한 후 일용직 노동자와 대필작가로 생활하며 틈틈이 소설을 썼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대학생 기자단 5기를 오는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 2008년 아시아문화전당의 추진 과정을 취재해 알리기 위해 결성됐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 블로그, 웹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활동할 5기 30명에는 글, 사진, 영상 외에 편집팀이 신설되며 최우수 활동자는 연말에 장관 표창을 받는다.

또 문화부는 정책 현장을 취재할 7기 대학생 기자단도 함께 모집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15명으로 모집 기간은 30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eumsoo Jang Hotel. It features a traditional Korean ink wash painting of a mountain and trees. Text includes: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Bright New Year of the壬辰 year),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www.geumsoojang.com'.

Advertisement for U-square restaurant. It features a chef and a woman in a white uniform. Text includes: '아일랜드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Advertisement for U-square sauna.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odern sauna interior. Text includes: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일랜드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